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 힘 모아

도내 학생 708명 등 총 926명 참여... 도교육청, 학생·교직원 안전관리 최우선

잼버리장 내 전북교육청 홍보관도 운영... 직업계고 교육성과 등 전시·체험 진행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성이 나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12일 부안에서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에 도내에서는 학생 708명, 교직원 35명 등 총 920여 명이 참여한다.

전북교육청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문화를 교류하는 최대 규모의 청소년 국제행사에 전북의 학생들이 참여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그동안 잼버리 홍보 활동 및 잼버리 참가 여건 조성 활동을 펼쳐 왔다

잼버리 홍보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 밀착형 홍보활동인 에코어드벤처·폐교(정읍 관정초)를 활용한 야영시설 구축·학교 내 청소년단체 지원·찾아가는 청소년캠프 등을 운영했고 학생 및 교직원의 참가 여건 조성을 위해 대원 및 지도자 교육 실시, 잼버리 JB 국가대표 운영, 잼버리 참가비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잼버리 개최 기간에는 '전북교육청 잼버리 안전관리팀'을 운영해 참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한다. 안전관리팀은 참가 학생 인솔 책임자를 통해 학생의 안전상태 및 증도

귀가자 등을 확인한 예정이다. 폭염·해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 구급함 모기피해 등 안전물품을 구입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전북교육청은 잼버리장 내에 홍보관도 운영한다. 영상을 통해 교육정책과 청렴정책 등을 홍보하며, 직업계고의 교육성과를 전시·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도내 7개 고등학교(전북하이텍고, 남원제일고, 진경여고, 학산고, 영선고, 강호항공고)가 드론축구, 목공작품, 네일&헤어 등 직업계고 교육사례 체험을 통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개·폐영

일과 일요일은 제외)

이와 더불어 전북교육청은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를 계기로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유도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단체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잼버리 참가비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참가 여건을 조성하고, 잼버리조직위원회에 교직원을 파견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성공개최에 힘써왔다"면서 "전북의 학생들이 전 세계 청소년들과 교류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기르고, 지·덕·체를 갖춘 균형 잡힌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주관 연구기관 선정

우석대 육태한 교수 주축 '안전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 고도화 연구' 수행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에서 '가이드라인 개발·근거창출 지침고도화' 분야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5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사업은 질환별 한의임상진료지침(CPG·Clinical Practice Guideline)과 한의표준임상경로(CP·Clinical Pathway) 개발을 통한 진료비 절감과 환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근거기반 지침개발'과 기존의 한의임상진료지침 중 임상 근거가 부족한 핵심 질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반영

해 한의임상진료지침과 한의표준 임상경로를 최신화하기 위한 '근거창출 지침고도화' 분야로 구분된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육태한(한의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안전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 고도화 연구'를 2023년 1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육태한 교수는 "안전신경마비는 2018년도 기준 국내 유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96명에 해당하며 2022년 기준 한방 외래 다빈도 질환 24위에 위치하는 질환이다"라며 "사회적 요구가 있는 핵심 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를 통해 신규 근거를 창출하여 최종 안전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부장



지난 26~28일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 2023년 전북학생의회·지역학생의회 의장단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린 가운데 참석한 학생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학생의원들과 지역학생의원들의 첫 만남

전북학생의회-지역학생의회 의장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지역학생의회 우수 안전 사례 나눔·모의 본회의 등 주 내용

전북학생의회(의장 최현호)는 지난 26~28일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 '2023년 전북학생의회·지역학생의회 의장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1기 전북학생의회와 지역학생의회의 공식적인 첫 대면으로 다양한 환경과 연령의 학생의원들이 만나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학생 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전북학생의회 운영 규정 개정을 위한 협의 △지역학생의회 우수 안전 사례 나눔 및 토론 △정기회 안전 상정을 위한 공동

의제 발굴 △전북 및 지역학생의회 모의 본회의 △해양안전체험 독도체험 등이다.

부안학생의회 김건희 의장은 "우리가 제안한 정책이 전북교육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것을 보며, 교육이 가르치는 사람은 물론 배우는 사람까지 쌍방향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진 것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익산학생의회 정주연 부의장은 "전북학생의회의 의원들이 아지는 구체화되지 않은 운영규정이나 분과위원회 운영 부분들을 보완해 튼튼한 밑거

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이 보람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지훈 학생의원은 "전북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고, 학생들이 자기주도한 전북학생의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어 원활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의원들은 전북학생의회 1기로서 학생들의 인권신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박 3일을 마무리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정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전북학생의회와 지역학생의원들이 함께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교육청-전주시

중기 상생발전 간담회

전주시가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부문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전북도교육청을 찾아가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북교육청-전주시 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이는 지난 28일 도교육청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15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부문 판로개척 촉진 방안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전북교육청-전주시 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대표들은 △전주시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방안 △교육청 연계 지역인재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제안된 기업인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부문 판로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도교육청은 물론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경제산업국 심규문 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라북도교육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종 기업 지원 시책 발굴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강한경제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도교육청,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 공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8월 10일 실시하는 '2023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를 지난 2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 교육소식-알림사항고시/공고)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총 1,112명(초졸 74명, 중졸 198명, 고졸 840명)이 지원했으며, 초졸·중졸 응시자 전체 및 고졸 응시자(수험번호 300800~300999)는 전주우송중학교에서, 고졸 응시자(수험번호 300001~300799, 302001~302002)는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재소시설 응시자는 순천중고등학교, 전주교도소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해야 한다.

응시자별 시험장소는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장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을 준비하고, 초졸·고졸 검정고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 필요시 개인 도시락 등을 준비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별도시험장 응시신청서'(공고문 참조)를 8월 7~9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제출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시험 시행을 위하여 응시자들이 반드시 공고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를 당부했다.

합격자는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 결정하고, 합격자 발표는 9월 1일 오전 10시 전북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교대, 지속가능

식생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전주교육대학교는 전북 보육기관 및 학교 교사 등 6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지난 27~28일, 31일~8월 1일 총 4일간 열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절기음식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이라는 테마로 절기음식에 대한 이론과 조리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과 우리 조상들의 지혜, 맛과 멋이 깃든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한 계승 의지를 함양하고자 연 것이다.

또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의 3대 핵심가치인 환경, 건강, 배려를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학교 급식 운영에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계절에 맞는 제철 식재료, 로컬 푸드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를 증가시켜 농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기자

특수학교 교육활동 보호 앞장

도교육청, 교육부 건의 등 통해 적극 추진키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특수학교 교육활동 침해 현황 파악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27일 전주선화학교 교원들이 긴급 교육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수교육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특수학교 내 학생지대로 인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장애 특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 학생들의 부적응행동, 돌발행동, 과격한 행동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수학교 교사는 일반학교 교사보다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선화학교 교장 교감, 교사들은 특수학교용 민원대응 매뉴얼과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의 필요성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초·중등과정·전공과 특수학교에 초·중·중등 2명의 교감 배치를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특수학교 교사들이 안

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학교용 교권보호 대책 마련에 적극 추진키로 의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안전으로 제안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특수학교 교감 배치에 관한 법 개정 필요성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는 차별없는 교육, 균형형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모든 학교의 교원들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의 교사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내달 3일까지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

도내 고교 1학년 30명·역사 교사 6명 대상 일본서 진행

전북지역 고등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일본으로 역사체험을 나선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학년 30명과 역사 교사 6명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을 진행한다.



전북도교육청은 8월 3일까지 진행되는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에 대비해 지난 22일 학생과 학부모,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일본 후쿠오카와 나가사키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연수는 실천적인 지식과 지속 가능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또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외 체험 학습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역사 학습과 탐구능력을 강화하며 자주독립과 민족의 화해·협력·평화의 가치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1940년대 조선인 강제징용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군항에 도독운동가들이 수감됐던 나가사키 형무소의 견학을 통해 일제 침략 이후 식민지 지배의 변화와 민중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현장에서 역사를 배우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분임별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2일 학생과 학부모,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전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인 신주백 교수를 초청해 '한국 근대사와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역사특강을 진행해 깊이 있는 역사 학습과 탐구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은 사제동행 역사체험을 통해 역사를 학문으로 서민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느끼고 경험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 일관계와 동아시아의 현실을 이해하고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시킬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